

“허용범위 내 S존 최대한 넓힌다”

(스트라이크존)

베이스볼 브레이크

올 시즌 스트라이크존 어떻게 변화?

극심한 타고투저…심판들 세미나서 대책 마련
타자 ‘무릎 앞선서 겨드랑이까지’ 최대한 활용
5일부터 스프링캠프 돌며 스트라이크존 설명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2016시즌 KBO리그에서 규정타석을 채운 3할 타자는 무려 40명에 달했다. 그만큼 극심한 타고투저의 시즌이었다. 이는 좁은 스트라이크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스트라이크존 확대가 올 시즌 최고의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KBO 김풍기 심판위원장을 비롯한 심판들도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 설악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스트라이크존 확대에 따른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스포츠동아 취재결과 확인됐다.

KBO는 2009시즌이 끝나고 스트라이크존 양쪽의 폭을 3.5cm씩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2010시즌부터 이를 적용했다. 그러나 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시행착오를 피하지 못했다. 결국 2011시즌부터 공식 발표 없이 사실상 원위치됐다. 김 위원장은 “2010시즌을 통해 스트라이크존 확대를 시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아무야했다. 공 한두 개의 차이가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당시 선수들의 반발도 컸고, 퇴장도 빈번했다. 여기저기서 (스트라이크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2010시즌 감독과 코치 포함 총 10명이 경기 도중 퇴장 명령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총 8차례가 스트라이크존과 관련된 것이었다. 공격 팀의 스트라이크 판정 관련 항의로 범위를 좁혀보면 1호 퇴장자인 강봉규(당시 삼성)와 2차례나 경기 도중 쫓겨난 카림 가르시아(당시 롯데) 등 총 7차례였다.

김 위원장과 심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내린 결론은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트라이크존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란 ‘홈플레이트를 통과한 공이 타자의 무릎 앞선부터 겨드랑이까지의 높이’에 형성된 것을 일컫는다. 김 위원장은 “2016시즌을 치르며 스트라이크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 자체적으로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다”며 “(스트라이크존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는 꽤 크다. 선수들도 ‘넓어졌다’고 느낀 것이다. 다만, 스트라이크존의 변화는 1~2년이 지나야 다듬어질 수 있으니 적용할



좁은 스트라이크존은 2016시즌 극심한 타고투저의 이유로 지적됐다. 스트라이크존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KBO 김풍기 심판위원장은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스트라이크존을 활용할 것”이라고 변화를 시사했다.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투수들이 제구력을 향상하듯 심판들도 피루노느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심판들은 5일부터 각 구단의 스프링캠프를 돌며 달라질 스트라이크존에 적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KBO리그도 스트

라이크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계를 이용해 스트라이크존의 높낮이와 폭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들도 (스트라이크존을) 넓게 적용하기 위해 그만큼 노력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150km 루키’ 고우석 설레는 LG 첫 전훈

신인지명 첫 해 스프링캠프 명단에
고우석 “선배들에게 많이 배우겠다”



LG 고우석

LG 스프링캠프 명단에는 신예투수들의 이름이 눈에 띈다. 2017년 신인지명회의를 통해 뽑힌 고우석(19)을 비롯해 2016년 신인 김대현(20)과 천원석(20)이 그 주인공들이다. 특히 고우석은 지명을 받자마자 스프링캠프에 합류하는 영광을 안았다.

고우석은 “어릴 때부터 LG팬”이었다고 한다. 이대형(현 kt)을 좋아해 TV중계를 꼭 챙겨보며 응원했다. 고등학교 때는 훈련하느라 ‘본방사수’는 하지 못했지만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은 빼놓지 않고 챙겨보는 열성팬이었다. 그랬던 그가 쌍둥이 유니폼을 입게 됐다. 신년하례식에서는 TV에서만 보던 선배들이 눈앞에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지명된 첫 해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인선수가 전지훈련을 떠나는 것은 팀으로서도 몇 년 만의 일이다. LG 양상문 감독은 “마무리캠프에서 고우석을 봤는데 공이 굉장히 좋았다. 만약 실전에서 훈련에서 보여준 모습만 보여준다면 즉시 전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며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오면 보통 부상이 있는데 몸이 건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우석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속 150km까지 나오는 빠른 공이다. 그는 “아마 추어에서는 빠른 공이 시속 151km까지 나왔다. 슬라이더도 던지는데 앞으로 커브나 체인지업 같이 떨어지는 공도 연마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1차 지명의 통과 의례 같은 부상이 없는 비결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충암고)가 경기만 하면 지다보니까 공을 많이 던지지 못했다”며 “턱분에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할 순 있었지만 공은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돼 있었는데 팀이 계속 쳐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아쉬움은 프로에서 풀 생각이다. 고우석은 “캠프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땀가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기보다 시범경기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고, 나 역시 실전에서 공을 제대로 던지는 게 중요하니까 몸 관리를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캠프에 가는 게 좋다. 선배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 잘 보고 습득하겠다”며 “시즌 목표는 다른 게 없다. 어떤 타자를 이기고 싶다고는 어떤 타자를 상대하든 긴장하지 않고 내 공으로 승부하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임찬규 스프링캠프 과제 ‘구위·구속·볼끝’

신정락·이준형 등과 5선발 경쟁

5선발 경쟁 중인 LG 임찬규(25)가 ‘구위·구속·볼끝’ 세 가지를 목표로 스프링캠프를 치를 뜻을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로 스프링캠프를 떠난 그는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 구속을 늘리고, 구위를 좀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한다”며 “특히 볼끝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찬규는 2015년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해 복귀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전반기에는 이렇다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후반기 1군에 돌아와 13경기에서 3승1패, 1홀드를 기록했다. 보이는 숫자는 좋지 않지만, 영양가는 만점 그 이상이었다. 후반기 그가 선발 등판한 8경기에서 팀은 6승2패를 기록했다. 6승은 치열한 순위싸움을 하던 팀에 큰 힘이였다. 데이비드 허프와 더불어 팀이 가을잔치를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시 임찬규의 무기는 빠른 인터벌(투수의 투구 간격)이었다. 상대타자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빠르게 미트에 꽂히는 공이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빠르게 던졌으니 이제는 느리게 던질 줄도 알아야 할 것 같다”



LG 임찬규

며 선발에 필요한 완급조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임찬규는 “스프링캠프에서 그동안 빠르게 던졌으니 이제는 느리게 공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생각”이라며 “지금보다는 구속도 끌어올리고 빠르기도 하고 좋은

게 아니니까 공을 좀더 묵직하게 만들고 싶다. 특히 볼끝에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던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겨우내 준비도 많이 했다. 스프링캠프를 떠나기 전 체중을 뛼했고 근력운동을 통해 몸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그는 “공을 강하게 던지기 위해 웨이트레이닝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며 “근력이 높아지면 유연성에 손해를 보지만 최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게 조절하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준형(24), 신정락(30) 등 경쟁한 후보들과의 5선발 경쟁에 대해서는 “경쟁은 좋은 일이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 부여가 된다. 경쟁을 통해 모두 잘 해서 좋게 풀릴 수 있다고 본다”며 미소를 지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정당행위를 가장한 ‘위험한 파울’



Sports & Law Story

양중영 변호사
법무부 법질서전진화과장

이청용 인생 바꾼 5부선수 살인태클 등
업무로 인한 행위 간주…법적처벌 힘들어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등은 법적처벌 가능

2011년 7월 31일 국내 축구팬들에게 비보가 날아들었다. 한국축구의 대들보 이청용(29·크리스탈 팰리스)이 잉글랜드 FA컵 경기 도중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청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자신의 3번째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있었다. 앞선 2시즌 동안 9골·16어시스트로 만족할 만한 활약을 보여줬다. 그 대가로 팀(당시 볼턴)과 3년 연장 계약에도 성공했다. 빅클럽에서 영입 제의도 받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5부리그 팀과의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살인 태클’로 인해 ‘오른쪽 정강이뼈 이중 골절상’을 당했던 것이다.

이청용이 그라운드로 복귀하기까지는 9개월이 걸렸다. 그 탓인지 볼턴은 곧장 2부리그로 강등됐고, 2015~2016시즌에는 3부리그

까지 추락했다. 재정악화로 구단 존립마저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볼턴으로선 이청용의 부상이 땅을 칠 만한 일이었을 것이다. 결과론이지만, 주축선수인 이청용이 2011~2012시즌을 온전히 뛰었더라면 지금쯤 전혀 다른 상황을 맞았을 수도 있다.

●살인 태클, 헤드 샷, 엘보 파울

살인 태클과 같은 상황은 축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야구에서 야수를 향한 주자의 슬라이딩이나 투수의 헤드 샷, 농구에서 엘보 파울은 심각한 부상을 불러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선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상황을 경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까?

스포츠에서 경기 도중 부상 발생은 불가피하다. 특히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허용되는 경기에선 더욱 그렇다. 실제로 경기 도중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경우도 제법 있다. 어떤 경우에는 얼굴이 찢어져 휴일이 남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의심되기도 한다. 스포츠가 아니라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경기 도중의 부상에 대해선 대체로 법이 개입하

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는 정당행위

우리 형법은 제20조에서 ‘정당행위’라는 제목 아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범죄의 일반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처벌이 면제된다. 경기 도중의 부상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업무로 인한 행위’인 것이다. 경기 도중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선 특별히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부상까지 법이 개입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종목에 따라 다르다. 복싱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복싱은 주먹으로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에 대한 공격이 허용된다. 따라서 뇌에 손상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챔피언에 도전했던 몇몇 선수들이 경기 도중 사망한 바 있다. 그러나 상대 선수가 처벌되지 않았다. 위험한 경기 중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기 때문이다. 눈 주위가 찢어지거나 턱이 골절되더라도 정당한 경기의 결과로 발생한 것



일정한 수준의 몸싸움이 허용되는 종목의 선수들에게는 늘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청용(오른쪽 아래)은 2011년 7월 잉글랜드 FA컵 경기 도중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스포츠동아DB

이라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다.

●기본을 넘어서면?

축구나 농구는 어떻게? 축구나 농구는 격투기가 아니다. 따라서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과격한 파울로 심각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행위가 아닌, 과격한 파울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 경우 법이 개입할 여지가 격투기에 비해 더 넓은 것이 당연하다.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이다. 즉, 과실로 범죄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목숨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과실치사, 과실치상이 대표적이다. 축구나 농구의 반칙 규정도 기본적으로 형법과 닮아있다. 고의적 반칙에 대해 경고, 퇴장, 출장정지 등의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경기규칙은 경기장 내에서 적용되는 형법인 것이다.

경기를 하다 보면 일부러 반칙을 하기도 한다. 상대팀의 기를 꺾기 위해, 우리 팀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위험한 행위를 금지한 경기규칙과 동업자 정신이 바탕이 된 배려가 바로 그것이다. 그 선을 넘어서면 경우 법이 개입할 수도 있다.